

관악 꿈나무와 유포니움 거장이 만났다

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스티븐 미드 예술감독 초청
겨울 마스터 클래스 운영
맞춤 강의로 실질적 조언



스티븐 미드(오른쪽)가 3일 마스터 클래스에서 청소년 관악 꿈나무에게 호흡법 등을 알려주며 직접 유포니움 연주 시범을 보이고 있다. 전선희기자

“좋은 연주자로 성장할 자질이 충분합니다. 손가락 움직임도 좋고요. 다만, 호흡을 하는 연습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바람부는 날, 나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숨을 내뿜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유포니움 연주자가 관악 꿈나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지난 3일 오전 문예회관 소극장, 새해 벽두, 관악 꿈나무와 거장이 만났다.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위원장 현을생)가 제주국제관악제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세계 유명 유포니움 연주자 영국의 스티븐 미드를 초청해 무료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했다.

매년 여름 제주에서 열리는 관악제는 올해 25년째를 맞는다. 사반세기를

넘어 관악제가 지속가능하려면 제주 지역 연주자 양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마스터 클래스 가동에 관심이 쏠렸다. 축제가 개최되지 않는 겨울철에 마스터 클래스가 기획된 점도 관악제의 확장성과 변모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맨체스터의 로얄노던음악대학 교수인 스티븐 미드는 그동안 제주국제관

악제에서 교육자 보다는 개막 공연, 마에스트로 콘서트에 참여하며 주로 연주자로 활동해왔다. 2013년부터는 예술감독직을 수행하면서 더욱더 별도의 강의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지난달부터 일본, 태국, 대만을 거치며 유포니움 등 금관악기 축제를 돌아본 스티븐 미드는 아시아 여행의 마지막 여정으로 겨울 제주를 찾

았다. 그는 “제주에서 연주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러분들의 연주를 한 명씩 듣고 도움말을 주고 싶다”고 했다.

이날 스티븐 미드는 유포니움, 튜바를 배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관악기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호흡법을 알려주며 수업을 시작했다. 1시간 동안 악기를 연습한다면 5분 정도는 노래하듯 악보대로 소리를 내보라며 “그같은 과정을 거치다보면 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실질적인 조언도 덧붙였다.

“큰 스승” 앞에 선 청소년 관악 주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스티븐 미드가 옆에 서서 유포니움을 같이 불고 연주 자세 등을 꼼꼼히 짚어주며 응원의 말을 건네자 차츰 자신감을 되찾았다. 연주자의 길을 걸으려는 아이들에게 거장의 당부도 이어졌다.

“그럭저럭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최고의 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연습해야 합니다. 좋은 음악을 연주하면 관객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하게 됩니다.” 전선희기자

2020제주문화예술지원 10개 유형 개편

우수 장기프로젝트 등 지원
신진예술가·일반창작 등
4개 유형은 1차 공모 진행

새해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은 종전 사업을 통합 개편한 10개 유형에 걸쳐 공모가 이루어진다. 우수기획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단년과 다년지원으로 구분해 장기 프로젝트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은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안을 확정했다.

이번 공모는 지원부서에 따라 나열되어 있던 14개 사업유형을 기초예술 창작 활성화, 국제예술교류 활성화, 지역문화 활성화 3개 부문 10개 사업 유형으로 새롭게 바꿨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지원자격을 문화예술 활동희수에서 활동경력으로 조정했고

누구나 창작할 수 있는 분위기 제고를 위해 전문예술인, 전문예술단체의 ‘전문’ 용어를 삭제했다. 우수기획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단년과 다년지원 사업으로 나눠 준비 단계가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심의 과정에는 예술가의 예술적 비전 제시와 예술성 가중치를 종전 30%에서 40%로 늘렸다.

이에 따른 1차 공모는 신진예술가

창작활동지원, 일반예술창작활동지원, 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동지원 4개 유형에 걸쳐 진행된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 국제교류예술지원사업 등 나머지 유형은 1월말 쯤 공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하는 이달 17일까지 받는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의 결과는 2월 중 발표한다. 제주문예재단 홈페이지(www.jfac.kr) 참고. 문의 064)800-9131-5.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 음악산업 방향 모색 ‘뮤직 위크엔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교류 방안 토론펴·쇼케이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제주도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이달 10일 성산 플레이스캠프에서 ‘제주 뮤직 위크엔드’를 연다. 이번 행사는 제주 음악산업 활성화를 취지로 국내외 음악산업 관계자와

뮤지션들이 참석해 지역 음악산업 현안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해외에서는 중국 국가음악산업기지와 상해 러즈엔터테인먼트, 국내에서는 슈가레코드 등 유명한 인디 레이블사 20여개사가 제주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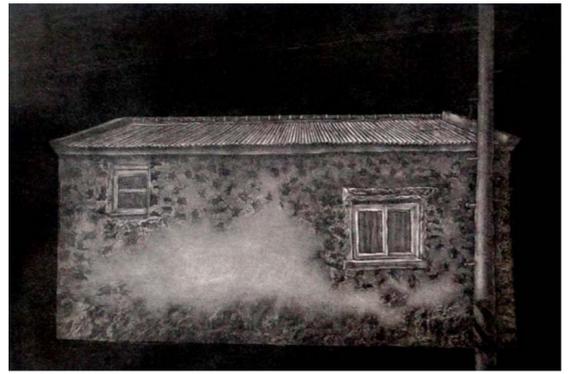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되는 ‘서울과 제주의 음악교류’ 세션에서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이규영

회장, 제주대중음악협회 강경환 회장,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김명수 조직위원장,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이운성 팀장이 지역의 음악 산업 이슈, 제주의 문화지형을 활용한 개선방안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 음악교류’ 세션에서는 국가음악산업기지방위팀 대표, 러즈엔터테인먼트 앤디 안 대표, 음악생산자연대 박용찬 회장이 한국과 중국의 음악 산업 교류를 다룬다. 서귀포예술의전당 부지에 조성되는 제주음악창작소가 제주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문화 교류의 교두

보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논의한다. 토론 뒤에는 뮤지션 공동 쇼케이스가 예정되어 있다. 하범석(벌리빈뮤직), 김슬기(웨스트브릿지), 우수환(DHPLAY엔터테인먼트), 제주사우스카니발, 오프레인(OFFRAIN) 5팀의 무대가 이어진다.

대중음악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205178)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4)735-0622. 전선희기자

이번주(1월 6~12일) 무대 & 미술



여섯되 창립전 흥기자의 ‘들창고’.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 미술에 담다

6인 작가 ‘여섯되’ 창립전
회화·판화 신촌 가림기행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들이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미술 그룹 ‘여섯되’가 창립전으로 준비한 ‘가림기행: 신촌’이다.

되는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양을 헤아리는 단위를 뜻한다. 여섯되는 여섯 명의 작가가 그 양을 조금씩 채워간다는 의미로 회원들은 문화예술의 여러 형태를 수집, 변형, 기록, 확장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창립전에 붙여진 가림은 제주 방언으로 ‘한 마을 안에서 작은 단위로 구분한 동네’를 일컫는다. 오춘자 백주순 이숙경 이연정 표선희 흥기자 등 6명의 작가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신촌 동네를 돌며 판화, 회화 등으로 원담 땀(멸치) 잡이, 보리빵, 들창고, 바다와 포구, 한라산이 보이는 풍경 등을 붙들었다.

〈공연〉
▶구좌 마을문화제=1월 9일 오후 6시30분 구좌하나로마트. 010-9660-3676.
▶서귀포시 문화도시 선포식과 경축음악회=1월 9일 오후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760-2494.
▶효례 국악 한마당=효돈중 주 최 1월 10일 오후 1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010-9898-1708.
▶한일원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제주제일중 주최로 1월 10

일 오후 6시 문예회관. 750-3252.
▶제주스테이 비우다 하우스 콘서트=1월 11일 오후 5시. 739-5004.
▶그림형제의 명작 콜라보 공연 ‘브레멘 음악대’ 제주=1월 11~12일 오후 1시와 3시 문예회관. 010-2488-8913.

〈전시〉
▶선홍 2리 마을 창작 그림책 전=1월 6일까지 세계자연유산센터. 710-6657.
▶김민경·김소라 2인전 ‘명란 마요’=1월 9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한국서각협회 제주지회 회원전=1월 9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한·중·일 국제환경사진문화 교류전=1월 11~16일 문예회관. 제주환경사진연합회 주최. 710-7633.
▶현은주 개인전 ‘빛의 제주’=1월 11~16일 문예회관. 710-7633.
▶우리는 매일 이사를 했습니다=이수민 드로잉 원화전. 1월 12일까지 서귀포시 강정마을 스페이스 산호. 010-3430-7334.
▶제주 출항해너 기록 사진전=1월 13일까지 해녀박물관. 782-9898.
▶여섯되 창립전=1월 14일까지 제주시 월대1길 더 몹시갤러리. 수요일은 문을 닫는다. 070-4196-5140.
▶원리리 해녀 사진전=1월 15일까지 한라도서관. 710-8666. 전선희기자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은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